

# 번역의 국제정치학

— 마틴과 휘튼

김용구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 **논문분야** 외교사, 국제정치학, 한국근대사

■ **주제어** 번역, 공법, 마틴, 휘튼, 국제정치학

■ **요약문**

이질 문명권 사이의 번역에는 오해, 굴절, 선택이 동반된다. 이런 현상에 관해서는 여러 원론적인 견해나 초보적인 이론 구성을 위한 노력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번역의 역사적 현장에서 분석한 업적은 그리 흔하지 않다. 이 논문은 1864년 마틴(W.A.P. Martin)이 휘튼(H. Wheaton)의 국제법 저서를 한역하면서 나타난 위의 현상들을 분석한 글이다. 이 과정에서 휘튼의 저서를 사대질서의 회전(會典)으로 오해했다. 이것은 유럽 국제사회와 사대질서를 혼동한 결과이다. 휘튼의 저서는 실증법적인 연구인데, 마틴이 자연법적인 색채를 가미해 굴절하여 번역했다. 자연법적인 전통을 지닌 조선과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이다. 휘튼의 저서는 유럽 공법의 지식이 없던 동양의 지식인에게는 난해했기 때문에 선택이 뒤따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독립, 균세, 자주와 같이 필요한 개념만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오해, 굴절, 선택을 동반한 번역으로는 유럽 국제정치학의 본질을 파악할 수는 없다. 오늘날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기본적으로 이런 번역의 국제정치학 수준에 머물고 있다.

## 1. 주변

번역은 의미 전달 기호의 3가지 전환 형태를 가리킨다. 같은 언어 안의 구두 기호를 다른 구두 기호로 옮기는 경우(intralinguistic), 한 언어의 구두 기호를 다른 언어의 구두 기호로 변경하는 경우(interlinguistic), 그리고 구두 기호를 비구두 기호로 전환하는 경우(intersemiotic)가 그것이다.<sup>1)</sup>

이들 형태 중 본 논문에서는 이질 문명권에 속하는 언어들 사이의 구두 기호들이 전환하는 데에 나타나는 오해, 왜곡, 굴절의 현상을 마틴(W.A.P. Martin)의 휘튼(H. Wheaton) 번역을 통하여 서술한다. 마틴의 번역은 공법질서 언어구조의 구두 기호와 사대질서 언어구조의 구두 기호 사이의 전환이었고, 두 질서의 본질에 관한 기본개념들의 번역이어서 사대질서에 속했던 사회들의 역사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개념은 특정한 사회현상을 인식하는 단어들 속에 함축된 여러 역사적 의미와 경험들이 하나의 단어로 응축되어 그 사회 구성원들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모든 정치 명분이 그러하듯 개념도 그것을 사용하고 주장하는 집단이나 계층의 가치관을 반영하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의 명분으로 합리화하여 표상한다. 따라서 개념은 그 출발부터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어느 역사적 시점에서 새로이 발생한 개념은 기존의 개념과 대립하여 다시 새로운 개념의 탄생을 예고한다. 개념은 장소(*topos*)와 시간(*tempo*)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

따라서 유럽과 비유럽 세계의 개념 분석 방법론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유럽 학자들은 유럽이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일어난 개념들의 시간 분석에 치중하거나 개념에 관한 유럽의 역사나 유럽 안의 전이(轉移) 현상만

분석하는 데에 만족할 수 있다. 역사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한 시대 개념의 언어구조를 분석하는 공시적(共時的, synchronic) 분석이나 한 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는 통시적(通時的, diachronic) 분석도, 그리고 한 개념에 관한 모든 의미를 분석하는 의미론(意味論, semasiology)이나 같은 개념의 모든 명칭을 연구하는 명의를론(名義論, onomasiology)도 비유럽 학자들보다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 유럽중심주의의 독특한 인식론이 있다. 현재 유럽 학계의 기념비적인 연구로 알려진 코젤렉(R. Koselleck)의 『역사의 기본개념(Geschichtliche Grundbegriffe)』이나 라이하르트(R. Reichardt)가 편집하고 있는 『프랑스 정치·사회 기본개념 편람(Handbuch politischer-sozialer Grundbegriffe in Frankreich, 1680~1820)』도 같은 인식론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비유럽 지역, 특히 사대질서의 천하에 속했던 지역에서는 여러 장소의 개념들이 충돌하는 지역으로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유럽과는 판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는 유럽 열강의 세계 팽창 대상 지역 중에서도 오지(奧地, hinterland/borderland)라는 독특한 역사적 성격을 지닌 장소이다. 오지는 유럽 열강의 공권력이 침투하기 이전에 사적(私的)인 집단들이 노략질 대상으로 여긴 지역이다. 이런 오지의 특징은 외래 개념에 대한 저항과 오해가 그 어느 지역보다 강렬하다는 데에 있다. 저항이 강하다는 것은 이미 지켜 온 개념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가정(假晶, pseudomorphosis)의 현상이 두드러진 곳이다. 가정은 광물이 그 내부 구조에 따른 본래의 결정형과는 다른 결정형을 나타내는 현상을 지칭하는 광물학의 용어이다. 다른 장소의 개념이 전파되는 경우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는 사회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슈펜글러(O. Spengler)가 광물학에서 차용한 낱말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는 중국이나 일본과도 판이한 역사적 경험을 지니게 된다.

1) Eco, Umberto(2001), *Experiences in Transl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 67.

오지라는 장소의 특징은 시간의 역사적 성격에도 반영되는데, 세계정치 중심지역의 개념들이 뒤늦게 전파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오지와 세계사의 접목은 세계사 흐름의 최후 단계에 이루어져서 오지의 세계화는 난항을 겪게 마련이다. 따라서 오지는 기본적으로 번역의 학문이 지배하기 마련이다. 이런 단계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번역이 남긴 ‘잔여( ) 사고(residue thinking)’가 지닌 역사적 성격부터 고찰해야 한다. 우리에게 19세기라는 역사적 기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19, 20, 21세기는 동시대적이다.

## 2. 굴절

19세기 중엽부터 유럽 국제법 학계는 실정법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법학에서 말하는 실정법주의는 법을 국가의사인 합법성으로 귀착시키는 법적 태도, 학설, 입장을 말한다. 이런 법적 태도를 지닌 국제법학은 국가의사 지상주의에 귀착하게 되고, 이 경우 국가란 곧 유럽의 근대 국가를 지칭한다. 따라서 실정법주의는 유럽의 근대 국가 발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19세기 전반은 자연법주의와 실정법주의의 혼합시기, 그리고 19세기 후반은 실정법주의의 전성시기이다.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마틴이 자연법적인 입장에서 서양 공법 저서들을 번역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틴은 선교사로 휘튼의 저서를 번역하게 된 동기부터 하느님에서 찾고 있다. 그는 신( )의 섭리로 서양 국제법의 저서를 번역하게 됐다고 1863년 10월 1일 친구 로리(W. Lowrie)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누구의 암시도 받지 않고 그것(번역 사업 지칭)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작업이 이 무신론적인 정부로 하여금 신과 그의 영원한 정의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기독교 정신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본인은 신의 섭리로 의심치 않는다.<sup>2)</sup>

한편, 그의 『만국공법(萬國公法)』 영문 서문에서는 국제법 지식이 없었던 중국을 돕고자 하는 순전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번역은 2년 전에 상하이에서 시작했는데, 이런 작업은 한 선교사가 선교의 장소로 택한 나라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것이라고 여겨졌고, 공식적인 후원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sup>3)</sup>

따라서 마틴은 원전의 경우보다 국제법의 자연법적인 성격을 더욱 부각시켰다. 마틴은 목사로서 기본적으로는 자연법주의자이며, 기독교와 그 문화를 중국에 전파시켜야 한다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국제법 번역이 성경 번역에 버금가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공언한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최초 번역인 『만국공법』에는 보이지 않으나 『공법회통(公法會通)』, 『공법편람(公法便覽)』에는 원전에는 있지도 않은 「범례」라는 항목을 권두에 설정하여 “공법은 이의(理義)를 준승(準繩)으로 삼는다”라고 명시해 공법의 기준은 이성과 정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의사 위에 상위질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점이 자연법적인 전통을 지닌 동양의 법의식에도 합당

2) Covell, Ralph(1978), *W.A.P. Martin. Pioneer of Progress in China*, Washington D. C.: Christian University Press, p. 146.

3) 『萬國公法』, 초판의 영문 서문 Translator's Preface, 1쪽.

했고, 서양 국제법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굴절은 생산적인 결과를 파생하는 경우도 있다. 마틴은 서양 공법을 전파시키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을 했다. 그중 그가 남긴 공헌은 고대 중국의 국제법 연구였다. 『만국공법』 영문 서문에서 마틴은 이미 고대 중국에서도 서양 공법과 유사한 규칙이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서양 공법이 비록 기독교의 산물이지만 중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만국공법』의 발간에 대하여 당시 중국 관료층은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인 태도를 취했다. 초판 300부를 각 지방 관아에 배포토록 했지만, 제대로 배포되거나 보급되지도 않았다. 『만국공법』이 발간된 지 10년 후에도 서양 제도 자체를 옹호하는 저술의 도입이나 유포에도 저항했다. 귀쑹다오(郭嵩燾)와 같은 거물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는 1875년 영국 주재 공사로서 부임하면서 총서(總署)에 보낸 일기체의 보고문이 서양 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서양의 공법을 높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탄핵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sup>4)</sup>

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이와 같이 서양의 국제법 이론 전파에 저항적인 분위기가 팽배하자 마틴은 『만국공법』을 번역할 때부터 갖고 있던 고대 중국의 국제법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만국공법』의 내용은 춘추전국 시대에도 볼 수 있었던 제도란 점을 중국인에게 알려 서양 국제법 이론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려 했다.

마틴은 중국 정부의 후원으로 1880년 5월부터 1882년 5월까지 2년에 걸쳐 세계 각국의 교육제도를 시찰했다. 마틴은 중국에 돌아와 1883년에 『서학고략(西學考略)』을 발간해 자신의 시찰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보면 마틴은 1881년 9월에 베를린에서 개최된 동양학자 대회에서 「고대 중국에서 국제법

4) 자세한 것은 김용구, 1997,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나남출판, 137~140쪽.

의 발자취(Traces of International Law in Ancient China)」를 발표했는데, 이 논문의 요지가 이 대회 자료집에 실렸다.<sup>5)</sup> 이 논문은 고대 중국의 국제법 규범에 관한 최초의 학술적인 업적이다.

마틴이 발표한 논문의 요지가 알려지자 그 전문(文)을 발표하라는 요구가 있게 되었고, 마틴은 프랑스로 이를 번역하여 당시 프랑스의 유명한 국제법 학술잡지에 발표했다.<sup>6)</sup>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춘추전국시대에는 국제법의 완전한 체계가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국제법 규범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① 공통 원칙이 있어야 유지되는 국가들의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들이 존재했다. ② 발달한 문명을 나타내는 의전(儀典)을 준수하는 사절의 교환이 있었다. ③ 조약들은 형식을 갖추어 초안되고, 엄숙히 서명되며, 맹부(盟府)에 보관된다. ④ 세력 균형은 잘 유지되었으며,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의 권리가 보호되었다. ⑤ 직업 외교관들의 계층이 있었다. ⑥ 중립국의 권리가 어느 정도 존중되었다. ⑦ 정당한 명분이 없는 전쟁은 금지되었다. ⑧ 비전투원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되었다.

마틴의 이 글은 「중국고세공법(中國古世公法)」이란 제목으로 『서정총서(西政叢書)』(1897)에 한역(漢譯)되어 실려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1884년에 마틴이 서문을 따로 작성해 게재했는데, 이 서문에서 마틴은 중국 지식인에게 당부하고 있다. 서유럽의 공법은 1~2백 년 전에 일어났으나 중국에서는 이미 춘추시대에 공법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중국 문교(文教)의 흥함이 태서(泰西)보다 앞선 것은 마치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과 같다”<sup>7)</sup>라고 쓰고 있다.

5)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ists*, Berlin, 1881, vol. 3, pp. 71~78.

6) Martin(1882), “Les vestiges d'un droit international dans l'ancienne Chine,” *Revue de droit international et législation comparée*, vol. 14, Juillet, pp. 227~243.

7) Martin(1897), *A Cycle of Cathay or China South and North with Personal Reminiscences*, N.Y., 제3판, 1900. 서문.

그러나 마틴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서유럽 국제법 이론이 중국에 전파된다는 것은 당시 중국의 국제적인 불평등 관계를 고착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1840년대 이후 일련의 조약으로 중국이 반(半)식민지화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서유럽 국제법 이론의 근간은,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것이며, 국제조약은 일방적인 힘으로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상 유지를 위한 명분으로 중국의 예속화를 합리화시켜 주는 법적 도구가 아닐 수 없다.

### 3. 왜곡

번역이 왜곡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1897년 8월 칭제건원(稱帝建元)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사대질서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명분상 홍범 14조로 조공관계는 이미 단절된 이후였다. 결국 10월 12일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앞서 여러 상소가 있었다.

의정부 의정(議政) 심순택(沈舜澤)이 백관을 거느리고 황제를 칭할 것을 여러 번 주청(奏請)했는데, 공법을 원용한 것은 권재형(權在衡)과 김재현(金在顯)의 상소였다. 특히 농상공부(農商工部) 협판(協辦) 권재형의 상소는 『공법회통』의 장절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황제 호칭을 진언하고 있다.

지금까지 ‘만국공법’, ‘공법’, ‘군세’ 등 일반적인 개념만을 거론해 왔는데, 특정한 국제법 저서의 장절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상소문을 작성한 것이 권재형의 글이 처음이다. 그러나 상세한 여러 문제를 거론하게 되자 『공법회통』의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1897년 9월 25일 권재형이 올린 상소문은 『공법회통』의 제84, 85, 86장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제84장에서 말하기를, 방국은 모두 존칭을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명(名)과 실(實)이 스스로 서로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注)에 이르기를 140년 전에 아라사 군왕이 황제를 칭하자 처음에는 각국이 이를 즐거워하지 않았으나, 20여 년이 지나자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신이 이를 미루어 피견대 각국이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 수는 없으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스스로 행하는 여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sup>8)</sup>

그러나 블룬칠리(Johann Kaspar Bluntschli)의 원전이나 마틴의 번역을 보면, 황제나 왕위의 칭호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군왕이 황제 칭호를 사용한 것을 20여 년 후 각국이 인정하게 된 것은 러시아 국력이 증강되었기 때문이라고 블룬칠리는 쓰고 있다. 또한 헤세(海司, Hesse) 공국이 왕위의 호칭을 주장했으나, 5대 강국이 1818년 엑스라샤펠(艾克司, Aix-la-Chapelle)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번역문이나 원문은 적고 있다.<sup>9)</sup> 따라서 권재형은 국력에 대응하지 않는 황제의 칭호를 거부한 『공법회통』의 장절을 인용하여 반대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할 것을 주청하고 있다. 원전이나 번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공법회통』 제85장의 인용도 같은 맥락에서 왜곡하고 있다. 그의 상소문은 이렇게 쓰고 있다.

제85장에 이르기를 방국이 관찰하는 것이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경지가 넓은 경우에는 황제를 칭함이 오히려 가하나, 그렇지 않으면 분수에 넘치는 망령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이를 미루어 생각해 보면,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는 데에는 원

8) 『고종실록』, 하, 4쪽.

9) Bluntschli, Johann Caspar(1895), *Das Moderne Völkerrecht*; tr., par C. Lardy(1868), *Le droit international codifié*, p. 99; 『公法會通』, 84~85쪽.

래 정하여진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를 관할하는 데에는 영국만한 나라가 없고, 경지가 넓기로는 러시아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들 나라들을 논한다면 언제나 황제를 칭해야 합니다. ‘혹 가하다’ 할 때 혹(或)이란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말이며, 뒤이어 ‘그렇지 않으면 분수에 넘치는 망령일 것(似)이다’에 쓰인 사(似)도 역시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sup>10)</sup>

그러나 마틴의 번역은 뒤이어 소국이 황제를 칭하면 안 되며, 유럽에서 황제의 칭호가 사용된 예들을 적고 있다. 또 블룬칠리의 원전은 더욱 명료하여 세계적인 권력을 보유하거나 여러 국민을 통치하는 국가만이 황제를 칭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sup>11)</sup> 그리고 제86장은 황제를 칭하는 국가와 평등하기 위해서 황제를 칭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권재형은 이를 인용하면서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서양과 사정이 다르며, 중국과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칭호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sup>12)</sup> 권재형은 이들 인용문 이외에 다른 공법이 어떠한지 모르 으나, 공법에는 황제 칭호를 금지하는 문구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1897년 9월 29일의 김재현 등의 상소문도 같은 취지였다. 이 상소문은 『공법회통』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공법 책에 말하기를’ 하며 간접 인용해 황제를 칭하는 국가와 평등하기 위하여 황제를 칭할 필요는 없다는 구절과, 열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주가 황제를 칭한 예, 두 가지를 들고 있다. 그런데 그 해석에 있어서는 권재형의 상소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10월 1, 2, 3일 계속된 심순택 등의 상주문에는 ‘만국공법에 의하면, 자주적인 국가는 그 뜻에 따라 황

제를 칭할 수 있다’<sup>13)</sup>라는 일반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 4. 오해

번역은 오해, 굴절, 왜곡 그리고 선택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이질 문명권에 속하는 언어 사이의 번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만국공법』이 전래되면서 이 책자가 마치 사대질서의 회전(會典)과 같이 서양의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성문법으로 오해되었다. 동·서양 국제질서의 본질에 관한 이런 오해는 공친왕(恭親王)이 마틴을 처음 만난 1863년 9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sup>14)</sup>

13) 『고종실록』, 하, 7~8쪽.

14) 마틴이 충서를 방문한 날짜에 관해서는 마틴 자신의 기록인 Cycle(1897), p. 233에는 11월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1864년 1월 8일자 New York Times에 마틴이 기고한 글에는 1863년 9월 10일이라고 정확한 날짜를 쓰고 있다(Covell, 1978, p. 164, note 102). 그러나 공친왕의 상주문은 마틴을 만난 날을 1863년 음력 9월이라고 적고 있어서 양력 9월 10일인지도 불확실하다(『籌辦夷務始末』, 5, 677쪽).

이 날 휘튼의 국제법 저서를 한역(漢譯)한 초본을 들고 중국 주재 미국 공사관의 중국어 통역관이자 선교사인 35세의 마틴이 미국 공사 별린게임(A. Burlingame)을 따라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을 방문했다. 이 날의 만남으로 『만국공법』이라는 전대미문의 서적이 발간하게 되어 동·서양 국제정치 개념 충돌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충돌(clash)은 이질 문명권 개념들의 만남이어서 저항, 오해, 굴절, 그리고 선택이 동반된다. 한 문명권 안에서 일어나는 개념들의 전이(轉移, transfer) 현상과는 다르다.

마틴이 충서를 찾아갔을 당시 그 책임자인 총령대신(總領大臣)은 이신(奕 )이었다. 이신은 도광(道光) 황제의 아들로 함풍(咸豐) 황제의 이복동생이자 광서(光緒) 황제의 숙부이다. 그리고 그의 생모가 바로 서태후였다. 일개 선교사 마틴이 지금 이신과 만나고 있는 것이다. 총령대신 밑에는 6명의 대신들이 있었는데, 만국공법 문제에 관해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원상(文祥)과 동순(童鈞)이었다. 원상은 군기대신(軍機大臣)이자 호부좌시랑(戶部左侍郎)으로 마틴에게 만국공법에 관해서 여러 질문을 직접 던지기도 했다. 『만국공법』에 서문을 쓴 동순은 『만국공법』이 발간되자 그 책을 손에 들고 축하 기념촬영에 나서기도 했다.

이제 사대질서의 세계에 서양 공법질서에서 통용되었던 이질적인 개념들이 무차별 전파되어

10) 『고종실록』, 하, 4쪽.

11) 『公法會通』, 85~86쪽; Bluntschli, Johann Caspar(1895), *Das Moderne Völkerrecht, 1868. Le droit international codifié*, tr., par C. Lardy, p. 99.

12) 『고종실록』, 하, 4쪽.

유럽 국제사회는 국가들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인 조약과 관습으로 규율되고, 사대질서의 사회는 중국의 국내법인 회전들로 규율된다는 본질적인 차이점에 관한 오해였다. 공친왕 상소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들은 중국 문자를 깊게 학습하고 중국의 서적도 탐색해 중국과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논쟁하는 경우 그들은 중국의 전제(典制), 율례(律例)를 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의 문자를 알 수 없어서 외국의 사례들을 전거(典)할 수 없으니 통탄스럽습니다. 동문관의 학생들이 외국 문자에 익숙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탐방(探訪)하여 보니 외국인 사이에는 『만국율례(萬國律例)』라는 한 서적이 있음을 알았는데, 이를 찾아 번역하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숨기어 드러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 공사가 서양 각국이 대청율례(大清律例)를 외국어로 번역할 것이라고 하면서 마틴이 근일에 외국에서 통행되는 율례를 번역했으니 한 번 만나 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863년 9월에 공사는 마틴을 대동하고 『만국율례』를 갖고 와서 외국과의 사건이 있을 경우 참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sup>15)</sup>

이러한 오해는 조선에서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한성순보』 제34호(1884년 9월 19일)에 게재된 「공법설」도 이런 오해를 안고 있다.

---

두 질서의 개념들이 투쟁하게 되었다. 투쟁의 대표적인 현상이 조선에서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사실 이런 현상은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역사적 현실은 아니다. 유럽 세계가 세계로 팽창하면서 나타난 일반적 현상의 하나에 불과하다. 18세기 이래 슬라브 세계에 나타나 현재까지 러시아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럽주의자(zapadnik)와 슬라브주의자(slavyanofil)의 대립도 같은 맥락의 현상이다.

15) 『籌辦夷務始末』, 同治, 권27, 25~26; 양장본 제5책, 677쪽. 군기처(軍機處)에는 1864년 음력 8월 30일 접수.

옛적에 우리 동양의 모든 나라들은 저마다 한 나라만을 고수할 뿐, 나라를 경륜하는 원대한 계책에 힘쓰지 않아서, 오로지 내정만을 중하게 여기고 외교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만국이 서로 통하고 업무가 날로 증가해 허다한 관계가 내정에 비해 점차 번다해졌으므로 법을 만들어 이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수많은 업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구미 법률가들이 하나의 책[밑줄; 필자]을 만들어 천하에 이를 행하게 해 이름하여 공법이라 했다. 공(公)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한 나라가 이를 얻어 홀로 가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법(法)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국이 이를 율법과 같이 준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를 공법(公法)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이 제도는 한 나라나 한 세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각국 사람들이 역대로 왕래한 습관이 항구적인 것으로 된 것[常], 각국 대헌(大憲)이 심단(審斷)한 것을 다른 나라들이 이를 원용해 예(例)로 삼은 것, 그리고 각국 명사들이 시비를 논정하고 의리를 천명해 후세를 열복(悅服)시킨 것, 이들 세 가지가 서로 참조돼야 법이라는 것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sup>16)</sup>

## 5. 제국주의

번역은 공법질서의 국제정치적 명분을 전파한다는 국제정치 현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인 당연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세계정치 주변이나 오지의 현실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사대질서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전파된 휘튼, 마르텐스(G. F. von Martens), 울지(C. T. Wolsey), 블룬칠리, 홀(W. E. Hall)의 모든 저서들은 당시 유럽의 팽창주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저서들

---

16) 『한성순보』, 780쪽; 번역본, 660쪽.

이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휘튼의 예 하나를 열거하면 충분할 것이다. 휘튼이야말로 유럽 문명권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합리화하는 국제법 이론가였기 때문이다.

휘튼에 의하면, 국제법이란 유럽과 기독교의 산물이며 문명 기독교 국가들의 법이어서 보편성이 없음을 그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다. 유럽 공법이 문명국의, 기독교 국가의 법이라는 19세기 유럽 공법학의 특징을 휘튼은 더욱 발전시켰다.

휘튼 견해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국가 승인의 창조적인 효과설을 창시했다는 점이다. 휘튼은 헤겔(G.W.F. Hegel)의 견해를 국가 승인설에 접목시켰다. 헤겔은 그의 『법철학』 중 국제법에 관한 강의에서 국가는 절대적 존재인데, 그런 절대성은 다른 절대적 존재들에 의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sup>17)</sup> 휘튼은 헤겔의 이 견해를 국제법에 결부시켜 국가의 창조적 효과설을 창안했다. 그리고 법률적(de jure) 승인과 사실적(de facto) 승인이라는 용어도 휘튼이 처음으로 사용했다.<sup>18)</sup> 국가 승인의 창조적 효과설은 제국주의 팽창을 합리화시켜 주는 대표적인 견해이다.

휘튼은 19세기 유럽 공법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이를 더욱 발전시킨 장본인이었다. 문명제국의 세계 확장을 선전한 대표적인 그의 저서가 마틴의 한역으로 동양 3국에 전파되면서 동양 지식인에게 널리 유행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역사적 사실이다.<sup>19)</sup>

17) Knox(1952), *Hegel's Philosophy of Ri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212.

18) Hersh Lauterpacht(1945), "De Facto Recognition, Withdrawal of Recognition, and Conditional Recognition,"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p. 171.

19) 마틴이 번역한 다른 저작들의 정치적 성격에 관해서는 김용구, 1997,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나남출판, 53~67쪽; 김용구, 2008, 『만국공법』, 도서출판 소화 참조.

## 6. 우연

중국의 총서는 『만국공법』의 간행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으나, 이 책이 현실적으로 출간되는 일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만국공법』이 햇빛을 보게 된 배경에는 비스마르크(O. von Bismark)가 개재되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일화가 아닐 수 없다. 1864년 비스마르크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공국 문제로 덴마크와 전쟁 중이었다. 그런데 이해 3월에 중국 주재 프로이센 공사 레프스(G. von Rehfues, 李福斯)가 다구(大沽)에서 텐진(天津)으로 가던 중 바다에 정박 중인 덴마크 선박 3척을 발견하고는 이를 나포했다.<sup>20)</sup> 그리하여 이 문제로 중국은 프로이센과 외교적인 마찰을 빚게 되었다. 이때 총서는 마침 마틴의 번역 원고를 갖고 있었다.

신(臣)들이 이 외국율례(外國律例)의 책을 조사하여 보니 중국 제도와는 모두 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역시 채택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 프로이센이 텐진 해구(海口)에서 덴마크 선박을 억류한 사건이 있어서 신들은 이 율례 중의 말을 몰래 채용하여 (프로이센과) 변론했더니 프로이센 공사는 곧 착오를 인정하고 말이 없었는데, 이것이 그 한 증거입니다.<sup>21)</sup>

총서는 중국 해안에서 나포하는 것은 중국 주권의 침해라고 마틴 번역 원고에서 인용해 프로이센 공사에게 반박했다. 결국 레프스 공사는 덴마크 선박 3척을 돌려주고 배상금 1,500달러를 지불해 사건은 해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총서는 『만국공법』 발간에 박차를 가했다. 비스마르크의 덴마크

20) 『籌辦夷務始末』, 同治, 권26, 29~35; 양장본 제5책, 656~659쪽.

21) 『籌辦夷務始末』, 同治, 권27, 26; 양장본 제5책, 677쪽.

전쟁이 서양 국제법 이론을 중국에 전래시키는 데 촉진제가 되었다.<sup>22)</sup>

‘사건사(histoire événementielle)’라고 한때 조롱을 받았으나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정치사나 외교사의 서술에는 우연의 사건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비스마르크 전쟁이란 우연을 통하여 굴절, 왜곡, 오해를 수반한 번역이 19세기 중반 이후 동북아라는 세계정치의 주변 지역에 전파되면서 마치 ‘개화’의 길잡이로 둔갑한 것 자체가 국제정치적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아직 도 ‘잔여 사고’로 우리의 국제정치 학계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19, 20, 21세기가 동시대적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용구, 1997,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나남출판.  
『고종실록』, 하.  
『한성순보』  
『籌辦夷務始末』, 同治, 卷27, 25~26; 양장본 제5책.  
마틴, 『萬國公法』, 1864, 京都.
- Bluntschli, Johann Caspar(1895), *Das Moderne Völkerrecht*; tr., par C. Lardy(1868), *Le droit international codifié*, p. 99; 『公法會通』.
- Chang, T. F. 蔣廷黻(1931), “Bismarck and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Law into China,”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15/4.
- Covell, Ralph(1978), *W.A.P. Martin. Pioneer of Progress in China*, Washington D.C.: Christian University Press.
- Eco, Umberto(2001), *Experiences in Transl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Knox, T. M.(1952), *Hegel's Philosophy of Ri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uterpacht, Hersch(1945), “De Facto Recognition, Withdrawal of Recognition, and Conditional Recognition,”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 Martin(1882), “Les vestiges d'un droit international dans l'ancienne Chine,” *Revue de droit international et législation comparée*, vol. 14, Juillet.
- Martin(1897), *A Cycle of Cathay or China South and North with Personal Reminiscences*, N.Y., 제3판, 1900.
-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ists*, Berlin, 1881, vol. 3.

22) Chang, T. F. 蔣廷黻(1931), “Bismarck and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Law into China,”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15/4, p. 101.

## Abstract

# International Politics of ‘Translation’

Yongkoo Kim(Hallym Academy of Sciences, Hallym University)

■ Key Word : Translation, International law, Martin, Wheaton, International politics.

As a specific case of communication across heterogeneous civilizations, translation entails unique cultural phenomena, characterized as misunderstanding, distortion, and selection. While various perspectives and studies have attempted to theorize such phenomena, they have remained largely at an abstract level. We need to move beyond general discussions, so that, by placing the issue in the context of concrete history, and employing textual analysis, we may trace the processes and the consequences of translation. Focusing on W. A. P. Martin's 1864 Chinese translation of H.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therefore, analyzes the phenomena of misunderstanding, distortion, and selection that originated in cross-civilization translation. Wheaton's work was written from a thoroughly positivistic viewpoint, the dominant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in Europe, at the time. In the absence of any knowledge of European public law,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Chosŏn intellectuals, or for their Chinese counterparts, to understand various key concepts of international law that Wheaton presented. Knowing this when he

translated Wheaton's work into Chinese, Martin altered the nature of the original text by adding natural law elements, which were familiar to Chosŏn and Chinese intellectuals. As such, this translated Chinese version greatly influenced East Asian intellectuals, who were deeply entrenched in the natural law tradition. Yet, this sort of distortion in translation resulted in misunderstanding and selection. Viewing their subject-matter through the distorted lens of translation, Chosŏn and Chinese intellectuals failed to identify the essential differences between European public law and *Sadae* order, as shown by the fact that they treated Wheaton's work as if it were the statute of *Sadae* order. Moreover, due to the ensuing selection of ideas, Chosŏn and Chinese intellectuals accepted only the concepts they needed, such as independence, balance of power, and autonomy, a reaction which sheds light on one important lesson: that translation accompanied by the phenomena of misunderstanding, distortion, and selection inhibited a proper appreciation of the fundamental nature of Euro-centric international politics.